

02+03

예술과 만남

2018 FEBRUARY + MARCH | VOL. 130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악 판 츠베덴 | Jaap Van Zweden



02+03

2018 FEBRUARY + MARCH | VOL. 130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CONTENTS

Focus

- 06 **Focus Image**
압 판 츠베덴
- 08 **Focus Column**
준비된 마에스트로
압 판 츠베덴과 함께
- 12 **Focus Interview**
올봄,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06

Stage

- 18 **주목, 이 공연 I**
더욱 따뜻한 마음을 준비합니다
경기도립극단
- 20 **주목, 이 공연 II**
멋과 신명이 어우러진
「천년 경기 우리춤의 향연」
경기도립무용단
- 24 **주목, 이 공연 III**
거침없이 달려 나가리라,
경기 소리의 대변자
경기도립국악단
- 28 **주목, 이 공연 IV**
객원지휘자와 함께
위기가 아닌 한층 도약할 기회로!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2, 3월 공연
-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애뜻함과 걱정 사이
흐트러짐 없었던 기교와 감정의 조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 34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음악으로 느꼈던
봄·여름·가을·겨울

Interview

- 38 **GGAC가 만난 사람 I**
오늘도 전당을 위해 달립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
- 42 **GGAC가 만난 사람 II**
우린 제법 전당과 잘 어울려요!
이충한, 이정현, 김주리, 허명현 사원
- 46 **예술가의 방**
공연기획자로 사는 것
윤준오 대리, 전윤희 주임(공연기획팀),
한소라 주임(국악사업팀)
- 50 **타인의 취향**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밝히는
미소의 온도
하우스 아서 장미소, 강동호 씨

38



Story



-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클래식 공연장 에티켓!
감동의 세계로 이륙하기 전
몇 가지 안내사항
- 58 **예술, 수작을 걸다 II**
진정한 '예술인 복지'를 꿈꾼다
- 62 **예술과 인문학**
조PD수첩,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클래식 잡학사전
-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Talk

- 67 **예술, 더하기**
- 68 **GGAC News**
- 70 **공연 캘린더**

Editor's Letter

기세등등한 맹추위도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법.
봄의 초입이 한발 다가오니 설렙니다.
올해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함께할
세계적인 거장 그리고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기다리는 일 역시 벌써부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공간 휴관에 따른 아쉬움은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생각에 마음이 먼저 분주해집니다.

'문화가치 우리같이'를 올해 비전으로 삼은 만큼
열심히 뛰고 곳곳을 누비겠습니다.
가치있는 문화를 당신의 일상에 선물 드리며,
우리 모두 같이 누리도록 <예술과 만남>이
그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울창한 숲을 데려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조금씩 천천히
숲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인 정재훈
편집인 정재훈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편집 조명아 허명현
편집위원 신혜원
이경원
전윤희
박혜은
조아라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4
팩스 031-230-3275
이메일 magazine@gga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매드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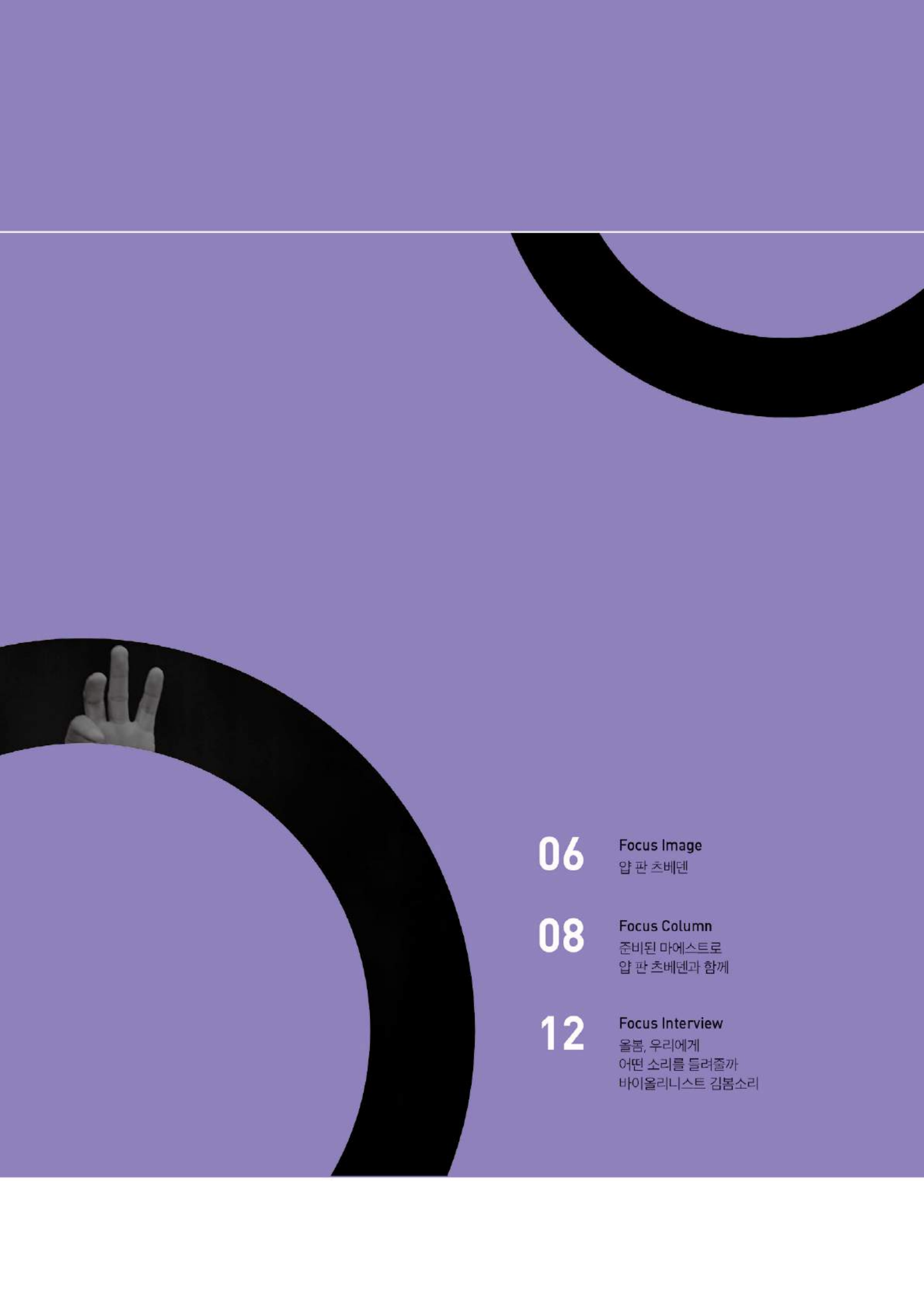
O

U

S P E C I A L
T H E M A

S





06

Focus Image

압 판 초베덴

08

Focus Column

준비된 마에스트로
압 판 초베덴과 함께

12

Focus Interview

올봄,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JAAP VAN ZWEDEN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압 판 초베덴

준비된 마에스트로 압 판 츠베덴과 함께

2018년 경기필하모닉이 새롭게 선보이는 세계 지휘자 시리즈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오케스트라 문화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탄복할 만한, 많은 일이 있었다. 한국 오케스트라들이 그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빗장을 열고 세계 음악가들과의 교류를 시작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완성도는 곧 지휘자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만큼 해외의 저명한 지휘자를 꾸준히 초빙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각 파트의 수석급 연주자들을 해외에서 초청하여 예술 성과 가능성을 높였다. 또, 단체의 협외력과 조직력, 인지도를 국제화하기 시작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21세기 접어들며 한국 문화계가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 국가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수준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오케스트라 문화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은 그 도도한 흐름의 맨 앞에 경기필하모닉이 앞장서 있었다는 점이다.

글 박제성(음악칼럼니스트)







성시연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성시연과 경기필, 리카르도 무티와 경기필

무엇보다도 경기필하모닉은 성시연이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체제와 구성, 완전히 새로운 기획과 연주를 선보이며 한국 오케스트라의 세계화에 앞장을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획기적으로 향상된 수석 단원들 기용과 다양한 솔로리스트들과의 협연은 물론, 체계적인 실력과 음악적 퀄리티를 담보한 연습과 연주를 통해 한국 오케스트라 문화의 수준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또, 유럽 본고장에서의 연주회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국내 음악 애호가들로부터도 두터운 팬덤이 생길 만큼 뜨거운 환호와 찬사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레코딩을 통해 이러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었다. 경기필하모닉으로서는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손꼽히는 리카르도 무티를 초빙해 연주회를 개최,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 기민하게 변화하며 마에스트로의 음악을 온전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는 놀라운

순간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케스트라 공연뿐만 아니라 오페라 반주도 활발히 하는 악단으로서 무티가 경기필하모닉에 남긴 흔적은 너무나 크고도 강렬하다. 정기 공연의 횟수와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수급,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 등등 아직 월드 클래스 기준으로 A급 오케스트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는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을 보노라면 시간 문제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츠베덴과 시작하는 세계 지휘자 시리즈

2018년을 맞이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단 성시연 지휘자가 연임하지 않으면서 예술감독을 새롭게 뽑아야 할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기필하모닉은 '세계 지휘자 시리즈'를 기획하여 다양한 거장급 지휘자를 초청해 악단의 음악성과 예술적 반응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의도했다. 일종의 실험에 가깝기도 하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은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회심의 카드는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리즈를 이끌 지휘자는 차츰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될 1회 공연의 지휘자는 바로 현재 홍콩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자 차기 뉴욕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얍 판 츠베덴(Jaap Van Zweden)이다.

1960년 12월 1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츠베덴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불과 18세의 나이로 암스테르담 콘서트허바우의 콘서트마스터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췄던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95년 이후 솔로리스트로 활동하는 동시에 지휘자로서의 수업을 쌓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내에서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

그의 지휘 경력은 너무나 화려하고 일사불란했다. 가장 먼저 그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네덜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Orkest van het Oosten)의 상임 지휘자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헤이그의 레지던트 오케스트라(Residentie Orchestra)의 상임 지휘자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힐베르숨의 네덜란드 방송 교향악단(Radio Filharmonisch Orkest)의 상임 지휘자를 맡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앤티워프의 로얄 필레미쉬 필하모니(deFilharmonie)의 상임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2012~2013시즌부터 홍콩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8~2019시즌부터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 지휘자로서 그 뒤로 펼쳐질 '세계 지휘자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 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작년 7월 홍콩 필하모닉과 츠베덴의 내한공연을 통해 그의 음악성을 조금이나마 일별할 수 있었다. 츠베덴이 연마한 홍콩 필하모닉의 사운드와 표현력은 고급스럽고 강인하며 변화 무쌍할 뿐만 아니라 농도 짙은 질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확한

디테일과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한 지휘자의 냉철한 절제력과 뜨거운 응축력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음반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음악관과 진취적인 예술성을 보여준 츠베덴. 네덜란드 특유의 해석 스타일과 현대적인 분석력을 겸비한 그가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케미를 일으킬지 그 어떤 연주회보다 기대가 크다.

3월 22일(목)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3월 24일(토)에는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연주회가 두 차례 열린다. 협연자 또한 지휘자만큼 충격적이다. 22일에는 최예은이, 24일에는 김봄소리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인 오케스트라 작품은 바게나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이다.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방위적으로 많은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두 젊은 한국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경기필하모닉의 제2의 도약이 펼쳐질 2018년에 시작되는 첫 '세계 지휘자 시리즈'에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응원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압 판 츠베덴(Jaap Van Zweden)





올봄,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누군가는 김봄소리를 최근 가장 '핫'한 바이올리니스트라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간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며 차분히 자신의 소리를 표현해왔다.
환한 봄소식을 알리는 산수유 꽃망울처럼,
이름 그 자체가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이 되는 그녀.
김봄소리는 올봄,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

김봄소리×압판초베덴×경기필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 비엔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를 비롯해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뮌헨 ARD 콩쿠르, 하노버 바이올린 콩쿠르,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등 최근 7년간 세계적 권위의 경연을 무려 11개나 휩쓸며 '콩쿠르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비엔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주목과 사랑을 받았고, 1등보다 유명한 2위로 입지를 굳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적 레이블인 워너클래식을 통해 인터넷서널 데뷔 앨범을 냈다. 워너클래식에서 앨범을 낸 한국 연주자는 정경화, 장영주, 임지영에 이어 네 번째다. 11월에는 뉴욕카네기홀 웨일 리사이틀 홀에서 이 공연장 데뷔 리사이틀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시작 2시간 전부터 몰린 청중들로 공연티켓이 개표 10분 만에 매진됐을 정도. 오는 6월부터는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와 유럽 투어도 펼칠 예정이다. 이쯤하면 최근 국내외 가장 '핫'한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릴 만하다.

그런 그녀가 3월 24일 경기 고양아람누리에서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해외 저명 지휘자를 초대하는 '비르투오소' 시리즈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지휘자 압판초베덴과 첫 협연 무대를 펼치는 것이다.

“판 초베덴이 뉴욕필 감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작년 9월에, 판 초베덴이 지휘하는 뉴욕필 연주를 감상한 적이 있어요. 뉴욕필이 역사상 처음으로 필립 글라스의 곡을 무대에 올린 날이라 화제가 됐었죠. 필립 글라스의 ‘투피아노를 위한 협주곡’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판 초베덴 선생님의 ‘말러 5번’에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필하모닉에서 이렇게 멋진 지휘자를 초청하여 같이 연주할 기회까지 주셨으니 정말 기뻐요. 경기필과의 첫 연주도 기대되고, 판 초베덴과의 호흡도 설렙니다.”

그녀는 이번 비르투오소 시리즈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자신만의 매혹적인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

“브람스 협주곡은 바이올린 협주곡 중 가장 스케일이 크고 교향악적인 성격을 지닌 곡이에요. 때문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드러나죠. 바이올린 협주곡이지만 교향악곡에 가까운 규모의 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더 큰 윤곽과 음악적인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둑 두는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을 섬세하게 켜는 모습이 우아하고 청아한 그녀지만, 의외로 서울대 재학 시절, 바둑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반전 매력을 뽐냈다. 바이올린 연주도, 바둑도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며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바둑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 배우다가 그 재미에 푹 빠져 기원을 다녔어요. 대학 때 바둑 동아리 활동도 했고, 요즘도 가끔 아버지와 바둑을 두거나 인터넷 바둑을 즐긴답니다. 프로기사들의 기보를 보거나 대국을 관람하는 것도 좋아해요.”

김봄소리는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 한판이 사람의 인생과도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누구나 하나의 둘이 되어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하나의 수가 쌓여서 인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수읽기를 잘해도 그 바둑이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늠아 알 수 있단다. 그래서일까. 7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 예원학교·서울예고·서울대·서울대 대학원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특유의 성실함과 도전정신으로 자신의 것을 완성해가는 그녀의 걸음은 마치 바둑을 두듯 신중하다. 잠깐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꾸준히 함께하며 음악을 나누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길 원한다.

라파우 블레하츠가 보낸 러브콜의 주인공

김봄소리는 탁월한 음악성과 근성으로 해외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200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와 유럽투어 연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음악적 잣대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가 그녀의 연주에 감명받아 실내악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고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지난 겨울부터 듀오 연주를 위해 호흡을 맞췄어요. 블레하츠는 박사 과정에서 철학과 음악미학을 전공하고 논문을 쓸 만큼 음악과 인생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는 아티스트여서 연주 외에도 제가 배울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리허설 과정에서 라파우 블레하츠와 음악적 견해가 달랐던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설득해가는 과정마저도 ‘매우 즐거웠다’고 전했다. 리허설 이후에는 그의 음악 세계가 더욱 궁금하여 음악도 즐겨 들었다고, 다방면에서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주는 파트너인 만큼, 김봄소리 역시 기다려지는 여름이다.

연주해보고 싶은 작품들

그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계속 발굴해 연주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전과 낭만 시대의 레퍼토리도 더 개발하고 싶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의 작품과 현대 작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줄리어드학교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악보를 찾아보고 있어요. 많이 연주되진 않았지만 주옥같은 곡들이 있어서, 그런 작품을 청중들에게 소개할 때 보람과 쾌감을 느낍니다.”

김봄소리는 올 4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릴 ‘펜데레츠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연주에 앞서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살아있는 현대작곡가와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은 연주자도 분명 음악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인 동시에, 청중도 더욱 세련된 연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봄의 문턱에서 김봄소리가 <예술과만남> 독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2018년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설렙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주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다양한 색깔의 소리를 담아내면서 봄소식 같은 선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S

T



O N T H E
V I E W

18

주목, 이 공연 I
더욱 따뜻한 마음을 준비합니다
경기도립극단

주목, 이 공연 II
멋과 신명이 어우러진
「천년 경기 우리춤의 향연」
경기도립무용단

주목, 이 공연 III
거침없이 달려 나가리라,
경기 소리의 대변자
경기도립국악단

주목, 이 공연 IV
객원지휘자와 함께
위기가 아닌 한층 도약할 기회로!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2,3월 공연



A

G

E

32

다시 잠고 넘어갈 순간 I

매혹함과 걱정 사이
호르라짐 없었던 기교와 감정의 조화
피아니스트 천우택

다시 잠고 넘어갈 순간 II

음악으로 느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PREVIEW

더욱 따뜻한 마음을 준비합니다

경기도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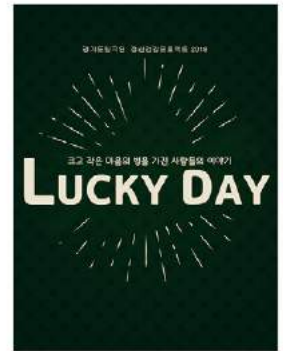
2018년 경기도립예술단들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시설 정비 공사 관련 휴관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중 올해로 창단 28년째를 맞는 경기도립극단(이하 극단)은
경기도립예술단 4개 단체 중 가장 말이다.
휴관이라는 이슈 아래 극단은 콘텐츠와 기획력의 온도를 더욱 높여
도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예정이다.



상주 무대였던 전당의 휴관은 오히려 극단이 그동안 수많은 순회공연과 초청공연으로 갈고닦았던 기동력을 선보일 기회가 될 듯하다. 이미 예열이 끝난 극단의 2018년 라인업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정신건강프로젝트'이다.

폭력, 자살, 우울, 소외 등은 이미 사회에 만연한 키워드 현대인은 누구나 각종 포털을 지배하는 이 키워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극단은 '정신건강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관객과 도민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선물하고자 한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터널 속에 갇혀버린 등장인물들에게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되뇌던 인물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여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란 흔치 않으나 극단은 이를 실현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극단은 이 외에도 창작 뮤지컬, 국악 뮤지컬, 경기천년 인물프로젝트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임은 물론 초청과 순회공연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누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 제작 프로젝트도 계속된다. 그간 응축된 극단만의 에너지를 진정 발휘할 순간을 기대한다는 극단 관계자의 설레는 말처럼 이들의 노련한 행보가 기다려진다.



정신건강프로젝트 <LUCKY DAY>



연극 무대를 위해 연습 중인 단원들



대본 리딩 중인 단원들

PREVIEW

멋과 신명이 어우러진 「천년 경기 우리춤의 향연」

경기도립무용단

경기천년을 기념하여 무용단의 주요 레퍼토리들을 총망라한 우리 춤 프로젝트!
2018년은 경기도립무용단이 경기도 곳곳으로 관객을 만나러 간다.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사랑가

2018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시설 개선으로 휴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용단은 경기도를 순회하며 「천년경기 우리춤의 향연」 기획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휴관을 기회 삼아 광명시민회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오산문화회관, 군포문화예술회관, SK아트리움, 화성누리아트홀, 수원SK아트리움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여 더 많은 경기도민과 두루두루 만남을 갖고자 한다.

「천년 경기 우리춤의 향연」은 제목 그대로 우리춤의 멋이 아름답고 신명나게 펼칠 예정이다. 총 8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4,000여 석에 달하는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는 하이라이트 레퍼토리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주요 우리춤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경기천년을 기념하는 행사취지에 걸맞게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를 첫 무대로 선보이고자 한다. 그밖에도 진도북춤, 부채춤, 가시꽃, 아박춤, 장구춤, 강강술레, 농악무, 역동, 모듬북, 사랑가 등을 선보인다.



장고춤



연습실 풍경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문화올림픽 문화예술공연

일시 2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문의 031-230-3440~2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패럴림픽 개회식 공연

일시 3월 9일(금) 오후 8시

장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문의 031-230-3440~2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춤의 세계화 가능성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무용단은 전국 및 세계에서 인정 받은 대표 레퍼토리로 우리 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고, 올림픽 성화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길 기원하는 무대를 갖는다. 세계인의 공통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춤, 음악, 연기를 통해 국적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과 소통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축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다. 또,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스테이지



연습실 풍경2

PREVIEW

거침없이 달려 나가리라, 경기 소리의 대변자

경기도립국악단



2018년, 경기도의 역사가 천년을 맞이했다.

천년의 시간은 경기도 전역에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역사, 또는 예술로 남았다.

경기도의 전통음악을 탐구하고 실현하는 경기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은 경기 천년을 맞이하여
굵직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 치세지음 프로젝트, '전국도립국악단 협의회' 발족 등으로
차분히 내실을 쌓아왔던 국악단이 마침내 물을 만났다.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1**<국악관현악축제>**

일시 3월 12일(일) / 4월 14일(토)

장소 평창올림픽 강릉올림픽아트센터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문의 031-230-3440~2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2**<놀이 음악극 : 콩데렐라>**

일시 6월 2일(토)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문의 031-230-3440~2

국악단의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1은 <국악관현악축제>다.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인 3월 12일, 강릉 올림픽아트센터에서 6개의 전라도립국악단이 모여 축제를 벌인다. 이어 4월 14일에는 '봄'을 주제로 전북도립국악단과 협연 무대를 펼친다.

작년 어린이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놀이 음악극 : 콩데렐라>도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2로 다시 찾아온다. 동양의 '콩쥐팍쥐'와 서양의 '신데렐라'가 만나 엮어내는 좌충우돌 스토리에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낼 놀이 한판은, 6월 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날 수 있다.

세계 속의 전통 국악은 어디쯤이며, 어떤 의미일까? 그 가치를 되새겨보고 짚어보는 공연을 준비했다.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재와 국가무형문화재 대공연>이 9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세계 속의 한국 음악, 한국 속의 경기 소리를 찾는 공연으로 국내 무형문화재는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통예술의 맛을 재현하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4 <Korea music in the world>는 국악단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치세지음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넘어 세계 보편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을 지향하는 국악단이 창작과 연주가 가능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공표하고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각국 우수 작곡가들의 곡으로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협주를 선보인다. 또한 창작곡 공모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작곡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국악단은 경기 새천년을 맞이한 경기도 예술단체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 줄 작정이다. 이미 차근차근 다져온 연주력과 기획력, 더 멀리까지 내다보는 안목까지 갖추었다. 잘 굴러가는 바퀴가 안정적으로 장착되었으니, 이제 달려나갈 일만 남은 국악단의 무술년(戊戌年)을 기대해보자.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재와

국가무형문화재 대공연>

일시 9월 18일(화)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31-230-3440~2

경기 새천년 국악프로젝트 4

<Korea music in the world>

일시 11월 17일(토)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230-3440~2

PREVIEW

객원지휘자와 함께 위기가 아닌 한층 도약할 기회로!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성시연 지휘자의 임기 종료로 경기필은 당분간 상임지휘자 체제가 아니라 객원지휘자 체제로 돌입한다. 객원지휘자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필은 '비르투오소 시리즈'를 선보인다. 다양한 성향을 지닌 자타공인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경기필을 지휘하는 시리즈이다. 2018년 객원지휘자로는 다니엘레 가티(Daniele Gatti), 얀 판 츠베덴(Jaap Van Zweden), 마시모 자네티(Massimo Zanetti), 니콜라이 즈나이더(Nikolaj Znaider), 리오 샴바달(Lior Shambadal) 등이 함께한다.





꽃 피는 3월, 경기필과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지휘자는 압 판 츠베덴(Jaap Van Zweden)이다. 츠베덴은 네덜란드 출생의 지휘자로, 지난 2008년 미국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왔으며, 2017~2018시즌부터는 뉴욕필을 지휘한다. 2018~2019시즌부터는 뉴욕필에 정식 취임한다.

츠베덴은 이번 비루투오소 시리즈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을 선보인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비교적 자주 연주되어, 흔히 곡 자체가 쉬운 거라는 인상을 가진다. 하지만 곡의 깊이나 테크닉에 있어, 실제로 연주하기 아주 까다로운 난곡이다. 자칫 단 한마디라도 길을 잃으면 곡 전체가 지탱하고 있는 밸런스와 흐름이 무너지기 쉬운 곡이기 때문이다. 협연자로는 최예은과 김봄소리가 나선다. 최예은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총애를 받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이며, 김봄소리 역시 차이코프스키, 쾨엘리자베스 등 다수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출중한 실력을 갖춘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츠베덴은 작년 홍콩필과 내한 당시, 바이올리니스트 닝펑과 함께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선보였다. 츠베덴은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주 명쾌하게 재단(裁斷)했다. 변화하는 바르톡의 박자 속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 작곡가 바르톡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비루투오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이 난해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이번에는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과거 경기필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인 리카르도 무티, 핀커스 주커만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뛰어난 연주를 선보인 바 있다. 이때의 감동은 음악애호가들 가슴에 또렷이 각인돼 있다. 번개는 한순간 번쩍 지나가지만, 눈에 남은 잔상은 눈을 감아도 오랫동안 남아 있기에, 이번 비루투오소 시리즈 역시 오랫동안 잊지 못할 감동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선장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세계를 여행할 경기필의 여정이 벌써 설렌다.

과 감 하 게 놀 라 보 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I

일시 3월 22일(목) 오후 8시

3월 24일(토)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가격 (목) R석 10만원 / S석 6만원

A석 3만원 / B석 2만원 / C석 1만원

(토)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출연 압 판 츠베덴, 최예은, 김봄소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준비한 비르투오소 시리즈의 첫 번째 문이 열린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압 판 츠베덴. 현재 뉴욕필의 상임이기도 한 압 판 츠베덴이 양일에 걸쳐 경기필을 지휘한다. 협연자로는 최예은과 김봄소리가 나선다.



경기도립무용단 초청공연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문화예술공연>

일시 2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3월 9일(금) 오후 8시

장소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하나 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한다.' 2018년 제23회 평창올림픽대회의 슬로건이다. 이에 발 맞춰, 경기도립무용단은 전세계에 그들만의 대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언어를 초월하는 무용과 음악으로 전 세계인들과의 교감을 이뤄낼 것이며, 소통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과 동시에 경기도립무용단의 심장도 뛰기 시작한다.



경기도립국악단

제2회 전국도립국악관현악 축제 <꿈과 어울림>

일시 3월 12일(월) 오후 7시

장소 강릉 올림픽아트센터

출연 경기도립국악단 등 6개 도립국악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경기도립국악단이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기 새천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시도 중 하나가 전국도립국악관현악 축제 <꿈과 어울림>. 전국 국악단 소속의 연주자 150인이 하나의 관현악단을 이루어 각 지역의 대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이자,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에 열린다는 점이 뜻깊다.



콘서트

<장덕철&슈가볼의 캔디데이>

일시 3월 14일(수) 오후 8시

장소 용인포은아트홀

가격 R석 5만원 / S석 4만원

출연 장덕철, 슈가볼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화이트데이를 맞아 사랑처럼 달콤한 콘서트가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다. 최근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남성 보컬 그룹 장덕철과 특유의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슈가볼이 함께한다. 울리는 사랑 대신, 더 달콤한 공연 티켓으로 마음을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 화이트데이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추천한다.



콘서트

타인의 취향(가제)

일시 3월 22일(목) 추후 변동 가능

장소 용인 포은아트홀

가격 R석 3만 3천원 / S석 2만 2천원

출연 이동진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브랜드 공연 <화양연화>가 업그레이드되어 <타인의 취향>으로 돌아왔다. 기존의 연량별-키워드 테마보다 구체적인 주제 설정으로 소소하면서도 심도 있는 토크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자의 범위도 확장되어 영화감독, 작가, 작곡가 등 다방면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출연한다. 숨겨진 보석 같은 뮤지션들의 음악도 소개해, 일상 속에서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경기도립무용단

천년경기 우리 춤의 향연

일시 3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3월 31일(토)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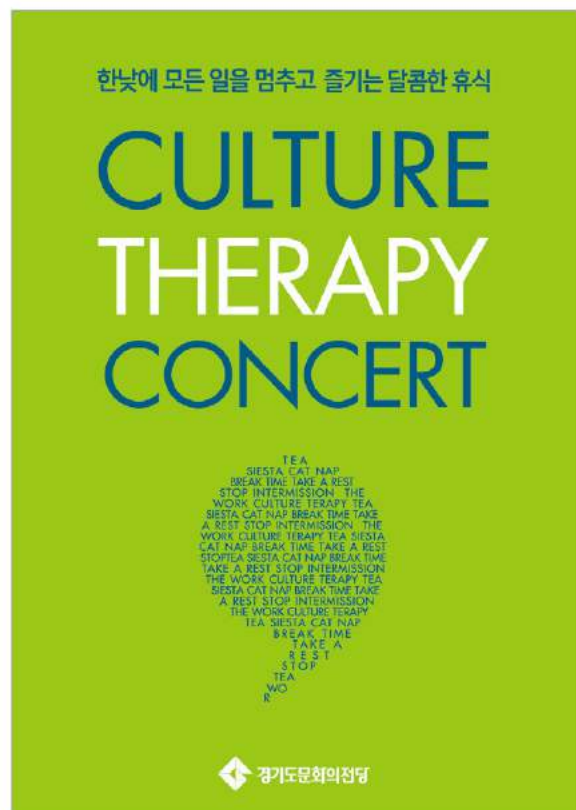
장소 광명시민회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우리 춤의 향연>은 오랜 시간 검증된 하이라이트 레퍼토리로 구성된 공연이다. 3월 광명시민회관을 시작으로 오산, 군포, 수원, 화성, 인천 등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대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민들을 두루두루 직접 찾아가, 경기도립무용단의 무대공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애뜻함과 걱정 사이 흐트러짐 없었던 기교와 감정의 조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선우예권의 연주 스타일에 관해 '뉴욕 타임스'는
 “그의 연주는 명료하고 에너지 넘치며 황홀하다”고 표현했다.
 이날 그가 펼친 탁월한 리듬감과 눈부신 기교, 풍부한 감성을 눌러 담은 농익은 연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글 김성주 경인일보 문화부 기자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선우예권, 팬들과의 만남



지난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아티스트를 꼽는다면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것은 물론, 피아니스트로는 드물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해 클래식 팬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한국 클래식 아티스트의 세계적 위상을 알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슈퍼 피아니스트 시리즈Ⅱ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로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다시 찾은 그는 여느 때보다 큰 환대 속에서 피아노 앞에 섰다.

그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경연에서 자신을 우승으로 이끈 작품들을 국내 팬 앞에서 다시 선보였다.

선우예권은 자신의 달라진 입지를 보여주듯 화려한 연주를 펼쳤다. 첫 곡으로 그레인저가 편곡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 중 '사랑의 듀엣'을 선택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레인저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정교한 작품으로 악명이 높은 이 작품을 연주하면서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어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9번 다단조 작품 958'에서는 곡 전체에 흐르는 음울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과 곡을 이끌어가는 힘을 보여줬다. 특히 위트와 평온함이 섞인 부분에서도 기저에는 곡 고유의 분위기를 살렸다. 운명을 마주하면서도 저돌적인 돌진을 멈추지 않은 작곡가의 내면 세계를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재현했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6번 가장조 작품 82'는 드라마틱하게 흥분이 고조되는 곡의 느낌을 선우예권 특유의 연주법으로 살려냈다.

특히 이번 피아노리사이틀에서 선보인 곡 가운데 라벨의 '라 발스'는 연주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왈츠 스타일의 곡이지만 춤보다는 음악에 초점이 맞춰진 곡이다. 오케스트라 버전을 피아노 독주 버전으로 만든 만큼 극단적으로 난해한 곡이지만 선우예권은 생생한 연주로 관객을 몰입시켰다. 애뜻한 소리로, 폭발적이고 격정적인 소리로 변화하는 분위기를 소화하면서 자신이 가진 기교와 섬세한 감정 모두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준비한 레퍼토리를 모두 마치고도 객석을 떠나지 않는 팬들에게 3곡의 앙코르곡을 깜짝 선물해 관객은 물론, 공연 관계자들까지 놀라게 했다.

한편, 선우예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지난해 구입한 스타인웨이의 그랜드 피아노 가운데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내는 쪽을 선택해 압도적인 연주를 선사했다.

REVIEW

음악으로 느꼈던 봄·여름·가을·겨울

글 류수현 연합뉴스 기자

지난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보컬 김종진이 진행하는
'브런치콘서트'가 4월과 6월, 9월, 12월 4차례에 걸쳐 계절별로 진행됐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뜻하는 브런치(Brunch)에 클래식 또는 대중음악이 곁들여졌던 이 만남은
바쁜 스케줄로 일상을 쫓기듯 사는 사람들에게 '한낮의 여유로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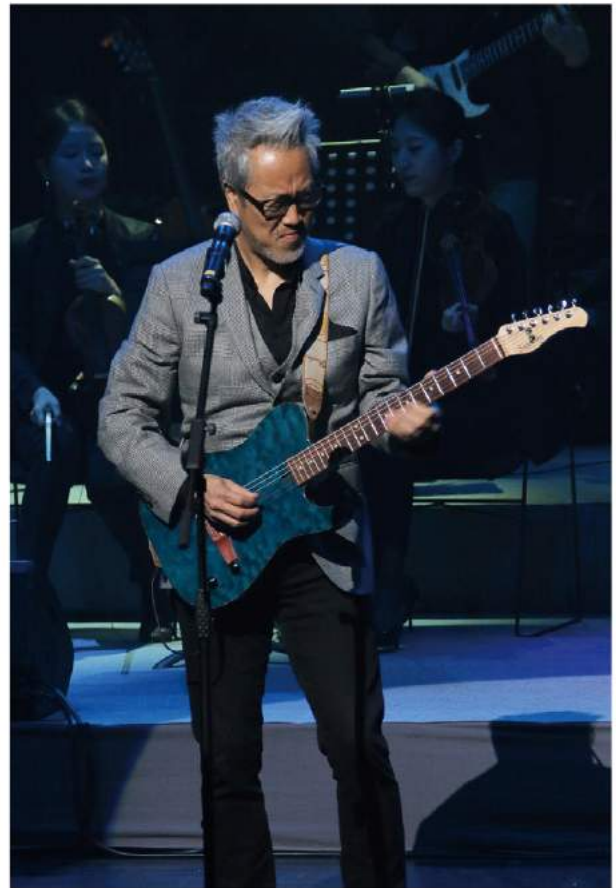


김종진(진행), 말로, 박주원

2017년도 경기도민과 사계절을 함께 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브런치콘서트> 반응은 뜨거웠다. 실력과 뮤지션 라인업은 물론 샌드위치와 커피가 제공돼 한 끼까지 해결할 수 있는 콘서트라니. 게다가 티켓 가격(2만 5천원)도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 낮에 열리는 공연으로 일컬어지는 마티네 콘서트'는 주부들을 겨냥한 클래식 공연이 주를 이룬다. 2012년 초연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브런치콘서트를 찾는 관람객들도 처음에 주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음악 장르, 관객과 교감하는 뮤지션, 사연 이벤트 등 알찬 구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브런치콘서트는 대학생과 퇴직한 노부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 마니아층까지 형성되자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해 초 이들을 위해 4회치 공연 티켓을 한꺼번에 오픈하는 '브런치 패키지'를 런칭했다.

<브런치콘서트>를 찾은 뮤지션들의 라인업을 보면, 관객들의 니즈가 정확히 반영된 듯하다. 꽃향기가 짙어지는 봄에는 서정적인 선율이, 한여름엔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목소리가, 가을과 겨울에는 웬지 섬세하고 짙은 음색이 끌리기 마련.

4월 20일에 문을 연 2017년 첫 브런치콘서트 게스트는 '마법의 성'과 '동경 소녀'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김광진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음색으로 감성적인 가사를 읊어 내며 관객들에게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봄기운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두 번째 브런치콘서트 게스트였던 가수 한영애는 특유의 강렬한 목소리로 대표곡 '누구없소'와 '바람' 등을 부르며 더위에 지친 관객들을 달랬다. 가을 게스트였던 록가수 김중서의 연륜이 묻어나는 짙은 음색과 겨울 게스트였던 재즈보컬리스트 말로,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음악세계 또한 그 계절에 들고 싶었던 소리로,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종진 |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보컬

지난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브런치콘서트의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공연 순간마다 감동하고 전율한 모습이었다. 대극장에서 열렸던 김중서의 가을 콘서트를 제외하고 모든 공연이 소극장에서 진행됐는데, 관람석과 무대의 간격이 가까운 이유에서일까, 관객들의 공연 몰입도는 대단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브런치콘서트는 뮤지션과 관객의 직접적인 교감도 놓치지 않는다. 걸출한 입담이 있는 토크쇼까진 아니더라도, 김종진과 게스트들이 주고받는 음악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깨알 웃음을 전달한다. 관객을 무대로 직접 초대하는 사연 이벤트도 소소한 재미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한낮의 음악 공연으로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싶다면, 음악으로 느끼는 사계절이 궁금하다면,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브런치콘서트>를 한 입 맛보길 권한다.



관객들의 사연 소개



IN

A R T &
P E O P L E

38

GGAC가 만난 사람 I

오늘도 전당을 위해 달립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

GGAC가 만난 사람 II

우린 제법 전당과 잘 어울려요!
이충한, 이정현, 김주리, 허명현 사원

46

예술가의 방

공연기획자로 사는 것
윤준오 대리, 전윤희 주임(공연기획팀),
한소라 주임(국악사업팀)

INTERVIEW



50

타인의 취향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밝히는 미소의 온도
하우스 어셔 장미소, 강동호 씨

INTERVIEW

오늘도 전당을 위해 달립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

2014년 9월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이끌고 있는 정재훈 사장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평일에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물론 주말이라고 여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주말에는 재능기부 레슨이 있기 때문.

그렇게 전당을 이끌어 온지도 4년째.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이지만,

이제는 CEO라는 직함이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정재훈 사장이다.



“똑똑똑”

여느 날과 같이 평범한 오후 3시 40분, 인터뷰어들이 인터뷰를 위해 사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늘 그렇듯 사장실은 분주하게 돌아간다. 평화의 순간이 찾아오는 법이 없다. 1층 한켠에 자리 잡은 사장실은 지금까지 정재훈 사장의 수많은 아이디어가 탄생한 곳이며, 늘 새로움으로 번뜩이는 곳이다. 이 공간에서 취임 4년 차를 맞이하는 정재훈 사장은 첫 마디를 꺼냈다.

“이제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사장으로 취임한 지 4년 차가 되었네요. 사장으로 취임하고는 정말 매일 매일이 바빴어요. 올해 역시 연초부터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 2018년 라인업을 정리하고 발표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정재훈 사장에게는 주말도 평일의 연속이다. 주말에는 늘 그렇듯 재능기부 레슨을 하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기 때문에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농담처럼 하루쯤은 늦잠을 자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작은 진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심신이 지칠 때가 있어도, 모든 일들이 보람차고 즐겁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신선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정재훈 사장은 힘들게 얻은 여가시간에는 음악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습에 매진해왔다. 그리고 여러 대화를 통해 음악에 대한 생각 역시 남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통한 감동도 받고, 힐링도 하게 되지만, 저는 음악이 추억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 유학을 하면서 14살에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적응문제를 비롯해 외롭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마다 음악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때 들었던 음악들을 들을 때면, 그 시절이 생각나요.”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주곡,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1번, 포레의 소품 등 당시 들었던 곡들을 열거하던 중 그는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에서 멈춘다. 그리고는 이내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영상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의 젊은 시절 연주를 보여준다. 1분 남짓 곡이 흐르고, 그의 눈과 마음은 감상에 젖었다.

“제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3번 Intermezzo 악장이에요. 어려운 시절 정말 돌려 듣고 또 돌려 들었거든요. 그렇게 젊었던 핀커스 주커만도 이제 일흔이라니,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정재훈 사장은 감상에서 빠져나와, 다시 시계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이내 곡을 중단한다. 3분 남짓한 짧은 곡 역시 온전히

들을 여유가 없다. 사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가늠할 수 있었다. 사장의 시간은 오롯이 관객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고객에게 행복을 전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예민함과 섬세함이 필요하죠. 매순간 어떤 아이디어로 고객들을 기쁘게 할지 끊임없이 상상해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도, 공연을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아마 저에게는 이런 DNA가 내재되어 있나 봐요.”

정재훈 사장은 아티스트로서의 섬세함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DNA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경영자가 하는 일은 조직인사를 비롯한 관리와 마케팅까지, 그 타이틀만큼이나 광범위하다. 4년간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훌륭히 이끌어온 정재훈 사장 역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제 강점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지를 아주 빠르게 파악하죠. 이는 곧 Customer Service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경기도민들의 만족을 넘어 한국연주자들이 세계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젊은 예술가들에게 대한 따스한 관심도 살필 수 있었다.

“저는 차세대 젊은 예술가들을 국가, 기업, 민간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원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한국의 유망주들은 실력이 뛰어남에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콩쿠르에 우승하면 3년간은 지원을 받아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본인의 힘으로 해 나가야 하는 구조라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콩쿠르를 통해 이미 역량을 검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는 무대에 설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거기서부터 한국 친구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정 사장의 포부 속에서 눈이 다시 한 번 빛난다. <예술과 만남> 독자들을 위한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다음 스케줄을 위해 또 다시 이동을 준비한다. 연신 시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분주한 뒷모습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의 탄생이 기다려진다. 사장실의 시간은 오늘도 빠르게 흐른다.



우린 제법 전당과 잘 어울려요!

이충한, 이정현, 김주리, 허명현 사원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게중심을 찾게 하는 선물입니다.” - 오프라 윈프리
무언가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도전을 마침내 해내는 것, 그것만큼 가슴 설레고
삶의 중심을 다시 잡게 되는 일이 또 있을까. 나이도, 전공도, 개성도 각기 다르지만
오직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뜨겁게 부딪혀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새 가족이 된 얼굴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새로운 빛을 더할 신입사원 4인방입니다.”



이충한

이정현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지원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김주리 작년 여름 관람했던 한 공연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분들이 방문하셨었어요. 그 어느 관객보다도 집중해서 공연을 관람하시고, 에티켓도 잘 지켜 주시고, 아낌없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시는 모습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분들께 이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관에서 즐거움을 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정현 대학 때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했고, 종종 경기필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그때마다 연주도 즐겁지만, 이러한

공연을 제대로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졸업 후에는 엔지니어로 근무했었는데, 조금 돌아서나마 공연기획과 인연이 닿게 됐습니다.

허명현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전달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시절에도 관련 매거진에서 객원기자로 활동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와 기관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지 막연히 상상했었는데 이렇게 전당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깊은 곳까지 문화예술이 닿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김주리



허명현

김주리 저 역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공연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예술적 재능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웃음). 대신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은 잘 해낼 자신이 있었죠. 그렇다면 예술가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서포터로서 예술이 좀 더 꽃필 수 있도록 문화행정으로 탄탄히 뒷받침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입사 전과 후,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김주리 생각보다 더 구성원이 많고, 진행하는 업무도 다양했어요. 선배들이 '우리는 호수의 백조가 고고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그 아래서 실 새 없이 물장구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시던데 우리의 물장구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어요.

이충한 진지함 속에 활기찬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전당은 공공성을 중시하면서도 예술성이 바탕이 되는 기관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선배들이 건넨 조언 가운데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면요?

김주리 선배님을 도와 <브런치 콘서트> 공연 준비를 마치고 함께 모니터링했었어요. 평소 공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마냥 기뻐요. 그때 선배가 "분명 아름답지만, 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티스트도 아름다운 것만 보고, 관객도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게 한 발 뒤에서 조율하는 것"이라고 한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허명현 급여는 다른 사기업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 추가적인 월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이정현 저는 이직을 하여 입사했는데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와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웃음). 농담 삼아 건네신 얘기지만, 선배님께서 지금까지 전당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매력적이고 보람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죠.

이충한 업무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지만, 실용적인 조언도 건네주세요. 제가 집이 의정부라 입사와 동시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침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생활의 팁도 공유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밥을 넉넉히 지은 다음 소분하여 냉장고에 넣어두면 유용하다는 식의. 마음 따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무한 지 두 달 차인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허명현 현장은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공연 마치고 나서 기쁜 미소로 돌아가는 관객의 표정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또, 평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대면할 수 있다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고요.

이충한 고객센터시스템에서 아트플러스 회원제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목표회원수를 세워놨는데요. 지난 달까지 조금 부족했지만 팀장님부터 저까지 모두 합심하여 초과달성을 일궈냈을 때 저도 뿌듯했어요.

각자의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요?

김주리 저는 공연기획을 전공하진 않아서 아코코채프아카데미를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어요. 지식과 전문성을 좀 더 갖추고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충한 아무래도 엑셀? 의외로 막히더라고요. 시간도 제법 걸리고(웃음).

여러분께 경기도문화의전당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충한 앞으로 이충한의 삶이 상영되고 전시될 크고 높고 화려한 집입니다. '크고 높고 화려한 집'은 전당의 사전적 의미를 활용한 것이고요. 전당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이 이곳에 녹아나고, 제 삶이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주리 혹시 경기도이충한의전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웃음).

이정현 제가 전당에 합격했다고 주위에 말씀드렸더니, 뭔가 어렵고 고상한 공간으로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직은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거리감과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 문턱을 차츰차츰 낮추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심터로 이끌고 싶습니다.

허명현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즐기던 입장에서, 이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를 바라보고 더 넓은 시야로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제게 전당은 새로운 삶의 출발선입니다.

김주리 제게는 전당이 까만 종이 위를 쓱쓱 긁으면 그 아래 형형색색의 컬러가 모습을 드러내는 스크래치북과 닮았습니다. 가능성과 다양성을 가득 품은 전당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에 따라 제 삶은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그려가는 그림이 곧 경기도민들께 아름다운 감동으로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2018년 여러분의 목표나 각오가 궁금합니다.

허명현 저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업무도 좀 더 능숙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주리 아직은 제가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지만, 열심히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서 공연기획팀에도, 전담에도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정현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올 12월에 열심히 살아온 2018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충한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보니 아트플러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 모실 것입니다. 전담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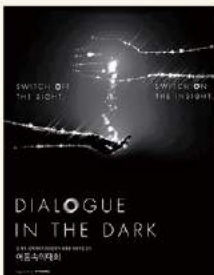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예술과만남> 독자에게도 한 마디 해주십시오.

이충한 좀 더 안전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담이 노후설비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관하는 동안 저희도 회원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고민과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과만남>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허명현 올 한해는 경기도와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좀 더 여러분 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만큼,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낭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레는 눈방울로, 하지만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신입사원 4인방. 그런데 그거 아는가.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사랑스러운 네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추천 릴레이



김주리 → 이충한

“제가 충한 씨를 처음 만난 게 블라인드 채용 때였어요.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 아무런 정보 없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선입견 없이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때 선했던 모습의 충한 씨를 떠올리니 <어둠속의 대화>라는 체험

전시가 생각났습니다. 100분 동안 소지품도 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둠속을 마주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충한 → 이정현

빌 브라이슨이 쓴 <나를 부르는 숲>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동부의 3천360km에 달하는 에팔레치아 트레일 코스를 친구와 함께 종주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체격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여정이

나아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르지만 같은 출발선 위에서 결국 하나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과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이 읽어보고 공감해줬으면 해요.



이정현 → 허명현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주인공은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로 활동하며 소박한 이웃의 얘기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정작 자신은 그 일에 만족하지 않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데요. 명현 씨가 비슷한 홍보 업무를 맡고 있기에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허명현 → 김주리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라고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원작소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곧 폐간될 LIFE지의 필름현상실에서 근무 중인 월터가 마지막 호 표지로 사용될 필름사진이 사라졌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어찌보면 가장 특별한 순간일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될 거예요. 일상에 늘 낭만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추천합니다.

공연기획자로 사는 것

윤준오 대리, 전문혜 주임(공연기획팀), 한소라 주임(국악사업팀)



<무티 베르디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경기실내악축제>, <윤중강과 함께 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이 가운데 여러분이 감상한 공연이 있다면 바로 이들과도 만난 적이 있는 셈이다.

관객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예술가와 관객이 무대라는 한 공간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세심한 숨결을 불어넣는 이들은, '공연기획자'다.



Q. 먼저 세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준오 대리(이하 윤) 지난해 <경기실내악 축제>,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 <DMZ 평화콘서트> 등 전당에서 진행하는 기획공연을 맡았습니다. 또,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윤희 주임(이하 전) 2016년 ‘<경기 리카르도 무티 아카데미> 개최를 비롯해 2017년 <무티베르디 콘서트>를 맡았습니다. <슈퍼 피아니스트 시리즈>를 기획해 스타인웨이와 피아니스트의 만남을 주선해왔으며 <브런치 콘서트 with 김종진>도 담당했습니다.

한소라 주임(이하 한) 저는 근무한 지 7개월 된 새내기 공연기획자입니다. 지난해 <판개는 소리> 등 기존에 진행했던 레퍼토리 공연을 재현했고, <윤중강과 함께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의 초연을 담당했습니다.

Q. 하나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전 공연 기획 및 아티스트 섭외뿐만 아니라 연출, 음악, 조명, 무대 등 모든 분야를 꿰뚫고 스태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술가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공연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전윤희 주임(공연기획팀)

예산 편성, 스케줄 조정, 홍보 및 마케팅은 물론, 관객에 대한 배려도 기획자의 몫이죠. 장르에 따라 제작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중강과 함께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와 같이 콘텐츠 중심의 공연은 ‘어떤 공연을 하고 싶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걸맞은 연주자나 배우를 섭외한다면, <무티베르디 콘서트>처럼 연주자 중심의 공연은 연주자 그 자체가 곧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어떤 곡으로 공연할 것인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Q.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자의 손길이 닿는군요. 그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요?

윤 모두 신경 씁니다만, 그중에서도 아티스트입니다. 저마다 성향도,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 ‘과연 예술가가 이 공연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더 놓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자 가장 즐거운 순간이죠.

전 전 관객이에요. 아티스트분들은 프로니 좀 더 믿고 맡긴다면, 관객분들은 같은 공연이라도 여러 주변 요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겐 가장 무서운 존재죠. 좌석등급과 티켓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서 최대한 관객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을 고민합니다.

한 저 역시 관객입니다. 초연기획공연은 공연 당일까지도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또 관객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될지 안 되기 때문에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이에요. 또, 전 주임께서도 얘기했지만 쉬는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무대 효과로 어떤 걸 쓸 것인지 등도 모두 기획자 손에 달렸기 때문에 늘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윤준오 대리

Q. 공연기획자와 공연연출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윤 생일상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식, 중식, 양식 중 어떤 음식을 할지 큰 틀을 짜는 사람이 공연기획자라면, 어떠한 식재료를 써서, 어떻게 조리하고, 플레이팅할지 눈앞에 구현해주는 사람은 공연연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객들께서 눈으로 보는 건 공연연출자의 것이지만, 없던 것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는 기획자의 고민과 아이디어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Q. 윤준오 대리께서는 <경기실내악페스티벌>이나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 등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도민들과 만나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경기실내악페스티벌>은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데 규모와 음악적 완성도 면에서 인지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껴요. 얼마 전에도 한 공연장에서 실내악 공연 문의를 해주셨는데, 지난 축제 때 서울에서 연천까지 공연을 즐기러 오신 분이 계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문혜 주임께서는 <무티베르디콘서트>를 준비하며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거장이라 부담이 컸죠. 또, 무티의 역대 내한 공연을 살펴봐도 베르디 곡으로 채운 무대가 전무해 많은 클래식팬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준비 기간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도 수원과 서울에서 진행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많았으며, 홍보도 계속 신경 써야 하는데다가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놓칠 수 없고...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잊지 못할 작업이었어요.

Q. 한소라 주임께서도 창작 초연 음악극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연출자이자 해설가이신 윤종강 선생님께서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온 아이디어를 저희와 함께 작품화한 게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예요. 지금은 영화 '해어화'나 드라마 '시카고타자기' 등으로 대중에게 1930년대가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대개 국악과 현대음악은 다른 범주라고 생각하죠. 주목되지 않았을 뿐, 그때 음악이나 감성은 꼭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말예요. 설령, 당시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어도 공연장까지 발길이 닿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다르다', '오래됐다'라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깨뜨리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Q. 그간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갔던 무대는 무엇인지요?

윤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을 통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재확인했어요. 여느 아티스트 못지않게 굉장히 진지해서 놀라고, 그들의 실력과 열정에도 다시 한번 또 놀랐죠. 이 친구들 눈빛을 보니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전 2015년과 2017년 부담당자로 'Peace & Piano Festival'을 준비했었는데, 전당에 이런 대표 브랜드가 있다는 게 참 좋아요. 페스티벌에 대한 마음이 깊다 보니 저도 늘 준비하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연주자를 아끼는 마음도 더욱 커지는 공연이죠.

한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요. 무대 배치부터 악기, 영상, 세세한 소품까지 모두 신경 써야 했고, 공연 첫날 국악방송 촬영까지 진행되어 지원해야 했어요. 점검해야 할 사항은 많은데 초연이다 보니, 여러모로 마음 썼던 무대입니다.



한소라 주임(국악사업팀)

Q. 그렇다면 공연기획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다양한 관심과 이해요. 제 경우, 아직 대중에게 국악은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어 트렌드를 반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 사람에 대한 배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예술가도, 스태프도, 관객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작품도 나오는 것 같아요.

Q. 한편 전당은 문화예술 공공기관이다 보니 기획에 있어 예술성과 더불어 공공성의 가치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 전당에서 <경기 문화나눔31>을 통해 지리적, 환경적 여건 등으로 문화적 수혜가 어려운 도민을 직접 방문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문화복지사업은 다른 문화예술기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전당에서 이 공연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고민을 담아 작품을 만들면서 그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결국 전당의 존재 가치이자,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Q. 올해는 경기도 전역에서 공연이 펼쳐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윤, 전 그간 전당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분들께 오히려 저희가 좋은 콘텐츠로 도내 곳곳을 누비면서 다가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특히 15개 시군에서 진행될 <경기실내악축제>를 통해 곳곳에 계신 도민들을 만나 뵈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한 경기도국악당은 휴관하지 않는답니다.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두 번째 시리즈는 어떤 가수의 곡이 준비될지 기대해 주세요. 경기도 유일의 전통예술전용공간이 경기도국악당인 만큼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민을 위한 좋은 공연을 끊임없이 선보이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밝히는 미소의 온도

하우스 어셔 장미소, 강동호 씨

비행기에 승무원이 있다면, 공연장에 하우스 어셔house usher가 있다.

깔끔한 유니폼을 차려 입고, 환한 미소로, 관객과의 접점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얼굴이 되어주는 이들.
오늘도 아티스트가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관객이 집중하여 즐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들의 숨은 땀방울 덕분이다.



낮선 이름, 그러나 익숙한 손길

어느 공연장을 가더라도 관객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공연장 로비에서 티켓 확인부터 공연장 내 좌석 안내, 공연장 질서 및 청결 유지, 고객 불편사항 해결과 서비스 제공, 유실물 정리까지 관객의 편의를 살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스 어셔’다. 대개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준비해 공연 종료 후 정리까지 담당하며 포지션은 공연 때마다 배정되지만 그래도 주로 맡는 역할은 있다. “미소 씨는 근무한 지 3년이 넘었으니 베테랑이네요. 공연 시작 전 그날 특이사항 등을 전달하며 저희를 이끌죠. 저는 주로 4번 게이트에서 관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강동호)”

출근 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연과 관객을 파악하는 일. 공연 정보를 나누면서 특이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제반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 이후 공연장 청결 상태와 소화기, 비상등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공연 시간이 다가오면 각자 위치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공연이 끝난 후 유실물 확인 및 객석 사이사이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장내를 정리정돈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 일의 매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무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짤 수 있다는 점이 이 일의 매력이에요. 매달 말, 다음 달 공연 스케줄이 공지되면 자신의 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3년째 전당과 함께하고 있네요.”

장미소 씨가 하우스 어셔의 매력을 ‘유연한 근무 시간’을 꼽자, 강동호 씨는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어요. 근무 중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봤을 때 그 묵직한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윤종신 콘서트>도 가사가 아름다워서 근무 중에 울컥했어요.(웃음)”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전당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빼놓을 수 없다고 입 모아 말했다. 전당을 찾은 관객은 그날 받은 서비스와 이미지로 공연과 공연장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 저희가 실수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전은 물론, 그날 공연과

전당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모두 책임감을 갖고 뚝뚝 뭉칠 수밖에 없어요. 끈끈한 동료애 내지 전우애가 흐른다고요?”

상처와 난처 사이

하우스 어셔는 관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보니, 수평적인 입장에서 서로 교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매너나 의무보다는 권리를 중시하는 일부 이용자로 인해 상처받은 적도 비일비재하다고.

“저희는 결코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중히 요청드리는 건데 오히려 칼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자연 관객이나 재입장 관객은 공연장에 들어가 빨리 착석하길 원하시지만, 안전 상태에서는 저희도 안내가 어렵고, 다른 관객도 배려해야 하죠. 그럴 때 저희에게 험한 말을 하시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시면 상처를 받는답니다. 또, 오징어나 맥주 등 음식물을 챙겨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공연장은 영화관과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 보니 난처하죠.”

서비스직 특성상 관객에게 모진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호 씨와 미소 씨는 하우스어셔라면 ‘멘탈이 강해야 한다’고 웃어 보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돌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해결해나가는 ‘임기응변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예요. 같은 말이라도 센스 있게 표현하면 관객들도 이해하고 협조해주시니까요. ‘센스’는 동료에게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여름에 진행되는 어린이 공연은 현장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때 동료가 건네주는 시원한 물 한 잔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웠어요!

“홈페이지에 전당 휴관 안내가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트 포지션 업무를 맡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모두 퇴장하시는데 어느 관객께서 제게 ‘그동안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죠. 사소한 말 한마디인데 가슴이 뭉클했어요.”라고 미소 씨가 고마웠던 관객을 떠올리자, 동호 씨도 “하우스 어셔도 누군가의 아들딸이자 동생이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 공사 후 새 단장한 전당에서 함께하게 될 하우스 어셔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신다면, 분명 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라며 마지막까지 당부의 ‘센스’를 놓치지 않았다.

STO

A B O U T
C U L T U R E

R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클래식 공연장 에티켓
감동의 세계로 이륙하기 전
몇 가지 안내사항

예술, 수작을 걸다 II

진정한 '예술인 복지'를 꿈꾼다

62

예술과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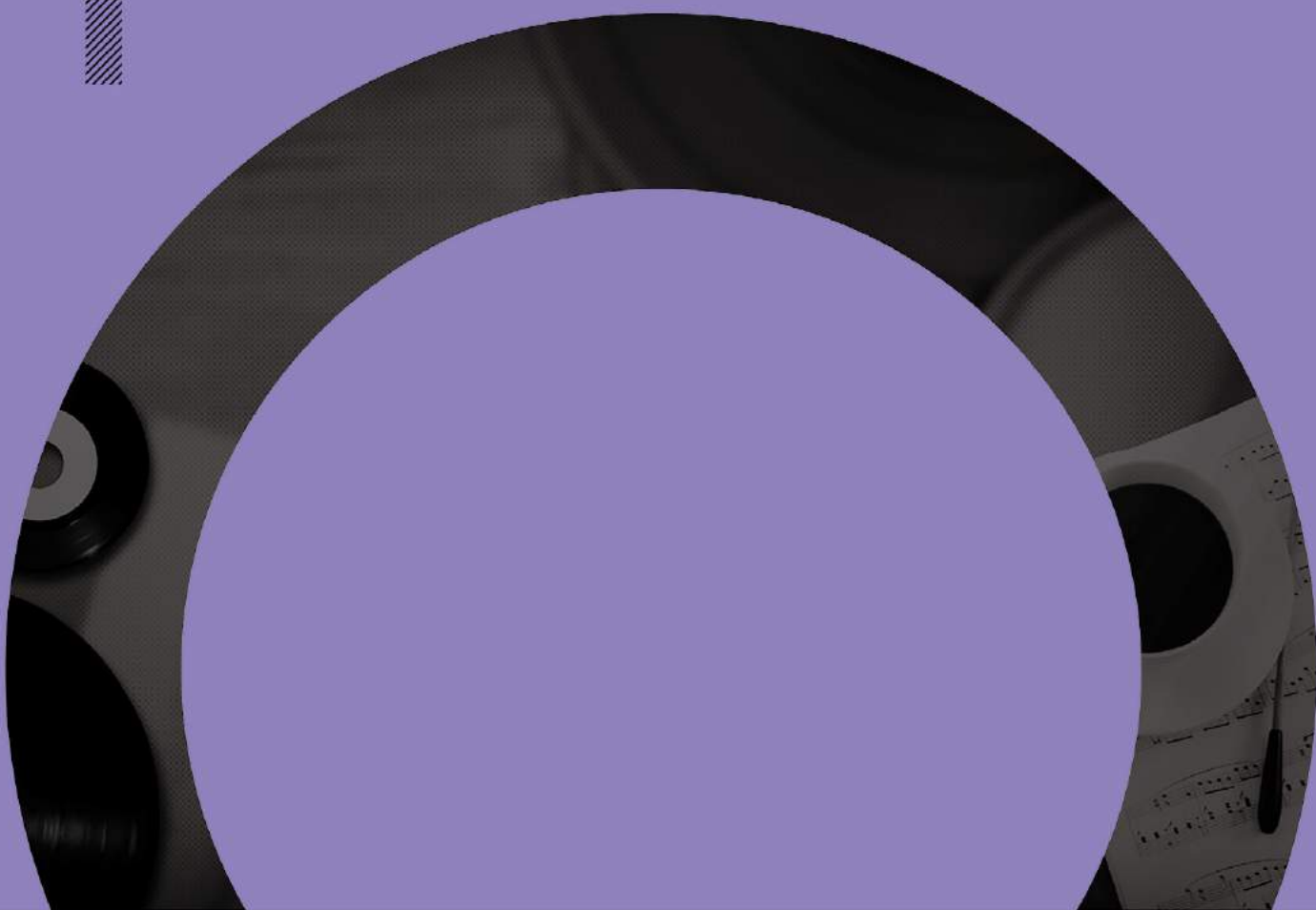
조PD수첩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클래식 집학사전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Y





클래식 공연장 에티켓! 감동의 세계로 이륙하기 전 몇 가지 안내사항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클래식 음악 공연장의 에티켓을 다룰 때면 조심스럽다.

AI가 바둑 뒤편 인간을 이기는 21세기인데, 주제넘게 계도하는 식의 계몽적 기분은 개운치 않다.

그렇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교양과 품위가 몸에 배어있는 당신에게는 동어반복이 될 테니.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바둑을 보는 것도 내 바둑의 복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에티켓을 언급할 필요 없는 당신에게도 내가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공연장에 자주 들르다 보니, 주위 관객들의 행동에 공통점과 연속성이 보인다. 10~20년 전에 비해 달라진 점도 많지만 불편한 진실은 더 늘었다. 최고의 화두는 역시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다.

음악회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장이다. 무대에 연주자들이 등장한다. 튜닝을 하고 고전음악이 연주되면, 청중의 영혼은 더욱 송고한 곳으로 향한다. 그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 삶은 전과 같지 않다.

그런데 공연장 내 휴대전화의 폭력은 현실을 각성시켜 이러한 여정의 지속성을 막는 데 심각성이 있다. 다른 차원으로 향하던 영혼은 누군가의 부주의한 휴대폰 벨소리 때문에 공중에서 계기 이상으로 추락한다. 한 번 일상이 각성된 후에는 좀처럼 다시 꿈에 몰입하기 힘들다. 전화벨 소리는 청중을 날아오르던 예술의 주인 대신 비루한 일상의 하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순식간에, 2천여 명을 한꺼번에.

다른 차원을 향하던
영혼을 추락시키는
휴대폰의 폭력



예술의전당에서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이 '라인의 황금'을 연주했을 때다. 무대 위에 쇠모루 소리가 들리고 니벨하임의 난쟁이들이 황금을 캐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 벨 소리가 터졌다. 신데렐라의 금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벨 소리가 그칠 때까지 기다린 정명훈이 다음 악구를 이어갔지만 흔들린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3년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뉴욕필 연주 도중 휴대폰 벨소리 때문에 말러 교향곡 연주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어둠 속 휴대폰 불빛은 말해 무엇하랴. 객석에서 현실로 강제 소환하는 신호처럼 원망스럽다.

스마트폰의 진화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볼 만하다. 요즘은 커튼콜 촬영이 허용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연 중 촬영은 절대 금물이다. 연주자가 깜짝 놀라서 연주에 악영향을 미치면 자기 손해다. 다른 청중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2017년 사이먼 래틀이 지휘한 베를린 필 내한 공연에서 조성진이 협연하는 라벨 피아노 협주곡 1악장을 마쳤을 때다. 몇 초간 2악장 연주를 시작하지 않자 청중은 고개를 가웃했다. 한 관객이 몰래 녹음한 1악장 뒷부분이 갑자기 재생됐기 때문이었다. 조성진을 비롯한 연주자들이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1악장의 향기로운 여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기침소리와 꺾속말,
핸드백과 짹짹,
손 지휘와 안다박수



휴대전화에 이어 불편함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것이 또 있으니 다름 아닌 기침소리다. 10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났다. 그동안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서 악장 사이 박수를 안 치는 에티켓이 널리 퍼진 건 고무적인 일이다. 웬만한 공연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그 반작용이 아닐까 의심 가는 게 바로 헛기침소리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한 악장이 끝나고 ‘흠흠, 쿨럭쿨럭’하고 일부러 내는 헛기침소리는 객석 전체를 순회한다. 청중이 한 번씩만 기침해도 2천 번의 기침이니 이만저만한 공해가 아닐 수 없다. 헛기침은 태도의 문제다. 생리적인 현상과는 구분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음악회장의 기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관객께서 공연 도중에 기침하셔도 됩니다. 나오는 기침을 막을 수야 없잖아요. 다만 입을 가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연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쁜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조성진은 연주자로서 불편한 청중의 기침을 분명히 지적했다.

자신이 내는 소리가 타인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알지 못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의 관람 태도도 음악회를 불편하게 한다. 어느 피아노 트리오의 실내악 공연 때였다. 연주도 훌륭했다. 그런데 뒷줄 꼬마 아이가 공연 중 계속 헛기침 소리를 냈다. 뒤를 돌아보며 주의를 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는 듯해 난감했다. 계속 신경이 쓰이니 그 부분의 음악을 도둑맞은 것 같았다. 아이의 잘못도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아이를 동반한 성인 보호자에게 있다.

클래식 음악은 대개 연주시간이 길다. 높은 수준의 소재와 전개도 초등학생들이 집중하기에 어려울 때가 많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클래식 공연장에 데려오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숙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과 에티켓을 미리 설명하든지 관람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 조기 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클래식 공연장에 데리고 와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고문이나 다름없다. 공연장 의자에 앉아 고개를 젓히고 단잠에 빠진 어린 학생을 보면 안 쓰럽기만 하다.

핸드백 여닫는 소리와 가방 지퍼 닫는 소리는 왜 한 줄기 오보에 선율이 객석을 퍼져나갈 때 들려야 하는 걸까. 신발 벨크로 테이프(일명 ‘짹짹’) 떼는 소리는 다른 사람이 느린 악장의 낭만적인 부분을 감상할 권리마저 찢어 떼어버리는 걸까. 사방 5m까지 또렷이 잘 들리는 옆 사람과의 잡담을 한창 음악에 귀 기울일 때 하는 걸까. 연주회 보면 허밍으로 곡의 멜로디를 따라하는 분들도 잡담과 마찬가지로 옆 사람에게는 고역이다. 악보를 펴놓고 넘기는 사람, 악보가 없더라도 열심히 손으로 지휘하는 사람 모두 주위 사람의 감상에 적잖이 방해된다.

공연장에서의 불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곡의 여운을 느끼기 전에 성급한 박수나 ‘브라보’ 소리 역시 에티켓에 어긋난다. 속칭 ‘안다 박수’는 감동의 물결을 한순간 얼어붙게 만든다. 최후의 음이 무대에서 3층 구석을 지나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큰일 하나?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같은 경우 마지막 음이 끝나도 지휘자는 곧바로 지휘봉을 내리지 않는다. 여음이 3층 구석까지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퍼지기도 전에 “브라보!” 소리가 튀어나오면 난감하다. 바흐 ‘마태 수난곡’같은 엄숙한 종교음악의 경우 브라보는 안 하는 게 상식이다. 엄숙한 장소에서 무례함을 목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공격받는 느낌이다.

누구나 처음은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본고장인 서양은 어떨까. 오늘날 같은 전반적인 음악회 에티켓이 정착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895년 이전까지는 클래식 음악 공연장이 귀부인들의 패션쇼장을 방불케 한 사적인 영역이었다. 새로 맞춘 드레스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공연장을 들락거렸고 음료수나 술을 먹고 마시는 일도 많았다. 그런데 백여 년 전부터 비로소 곡이 연주되는 동안에 객석에 입장할 수 없고, 잡담은 물론 기침도 자제해야 한다는 음악회 에티켓이 성립됐다.

에티켓의 확립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등장과 함께했다. 19세기 중산층이 대두되고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성대한 의식, 또는 제의로 인식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음악회의 기준이 다른 장르로 확대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클래식 음악의 에티켓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다. 지금은 보편화된 '악장 간 박수 금지'도 지휘자 푸르트벵글러 이전에는 에티켓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에티켓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관습법이다. 내가 필요하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간다.

공연장에 청중으로 앉았을 때 옆자리의 누군가는 태어나 처음으로 클래식 공연을 보러 왔을지도 모른다. 잘 모를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누구나 처음은 있지 않은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의 피날레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칠지도 모른다. 슈베르트 가곡을 듣다가 프로그램 한 묶음이 안 끝났는데도 환호와 갈채를 보낼 확률이 높다. 이들을 너무 '까칠하게' 대하지는 말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예외 없다. 기침을 못 참은 적 있고 뉘 놓고 있다가 연주 중 휴대폰이 켜져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배터리를 뺐던 식은땀 나는 기억이 있다. 그러니 공연장에 들어서면 순간 방심하면 안 된다. 교양인의 필수인 에티켓을 점검하자. 안전운행을 위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자.

지금 피아니스트가 입장하고 갈채가 쏟아진다. 감동의 세계를 향해 이륙이 막 시작된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진정한 ‘예술인 복지’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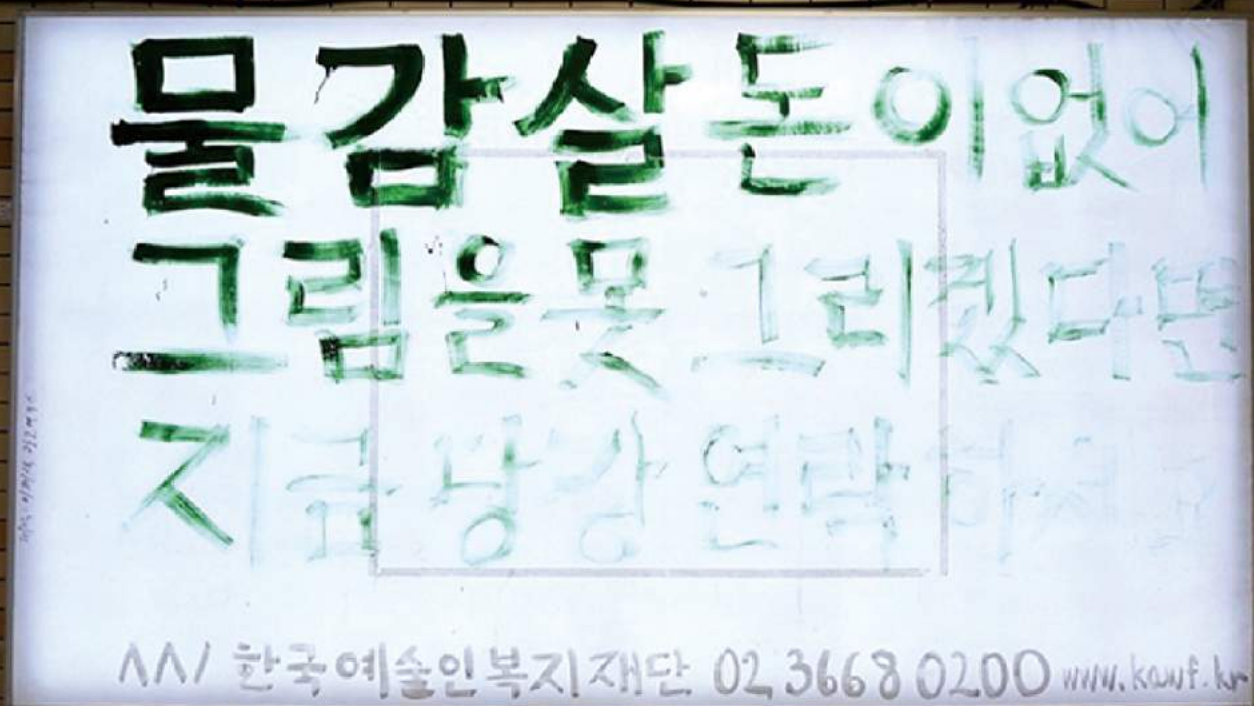
글 홍형진 소설가

예술인에게 복지란 남의 이야기였다. 대부분 소속 없는 프리랜서다 보니
4대 보험에서 일단 소외되고, 은행에서 금융 거래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

그런데 최근 들어 ‘예술인 복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보험의 보완책이 첫걸음을 뗐고, 예술인 실업급여와 예술인 복지금고 등도 도입 직전이다.

이제 예술인에게도 복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크게 확충된 예술인 복지사업의 면면

예술인 복지 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 본연의 정의에 따른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지원, 그리고 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단체 및 개인의 작업을 보조하는 지원이다.

먼저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부터 살펴보자. 복지의 첫걸음은 아무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보험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소속된 직장인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예술인의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복지의 첫걸음부터 난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크게 차별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술인이 도리어 부담을 느낀다.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정소득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집(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근거로 상당한 액수를 부과받는 경우도 흔하다. 뚜렷한 소속 없이 작품 활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업계 속성상 고용보험에서도 소외되어 있으며 산재보험 역시 남의 이야기다. 무용, 연기 등 몸을 쓰는 예술인의 경우 연습 과정에서 다쳐도 보상받기 쉽지 않다. 혹 관계 악화를 초래해 향후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봐 홀로 끔 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들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차례차례 마련되고 있다.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그 주체다. 예술인이라면 홈페이지를 찾아 꼼꼼히 살펴봄 직한 내용이 많다. 먼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50% 지원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국민연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소속이 있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은 없는 대신 활동 내역,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 마련된 점도 희소식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기에 특정한 사용주가 없는 프리랜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몸을 쓰는 실연 예술인의 보험료가 책상에서 집필하는 창작 예술인보다 다소 높다는 게 특징이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나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겪는 예술인에 한해 중증질환을 우선으로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들은 모두 최근에 집중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예술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살펴보자. 예술인의 주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공모전 형식을 취해 지원금이나 공연 무대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이다. 이는 문예 창작, 시각 예술, 공연 예술, 연구 평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신인 선발을 위한 공모전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을 거친 프로끼리의 공모전이기에 경쟁이 센 편이다. 선발된 우수작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우수작을 창작할 수 있게끔 돕는 사업도 있다. 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심사를 거쳐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일정 기간 제공해주기도 하며, 예술인이 필요한 기업이나 지자체 등을 알선해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런 사업의 주체는 다양하다.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문화재단을 위시한 각 지자체 산하의 단체는 해당 지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무래도 전자의 사업 규모가 더 크고 범주도 넓고, 경쟁도 더 치열하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다. 인구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종 지원과 프로젝트가 편중된 탓이다. 이에 조금이나마 기회를 더 얻고자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예술인도 있다. 지역에 따른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예술계에 만연한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이분법적 시선도 점진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다.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예술인 지원 제도는 이처럼 점차 확충되고 있다. 4대 보험 관련 부분은 숙원이었기에 특히 반갑다. 각종 지원 사업 또한 예술인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볼 때 예술인에게 이만큼이나, 어쩌면 이보다 더욱 절실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시장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앞서 언급한 사업은 대부분 세금을 투입해 예술인에게 ‘베푸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사업이 예술인에게 절실한 이유는 간단하다. 예술이 대중과 괴리되어 시장에서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술 작품이 시장에서 왕성하게 거래되고 그를 통해 많은 예술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지금처럼 각종 지원 사업에 목을 매진 않을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 부족이다. 시장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술 관련 대학과 전공을 중구난방으로 설립하는 동안 예술 노동시장은 극심한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예술인의 상당수는 예술 활동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레슨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열악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은 자명하다. 구조 조정은 필연이고 진통은 상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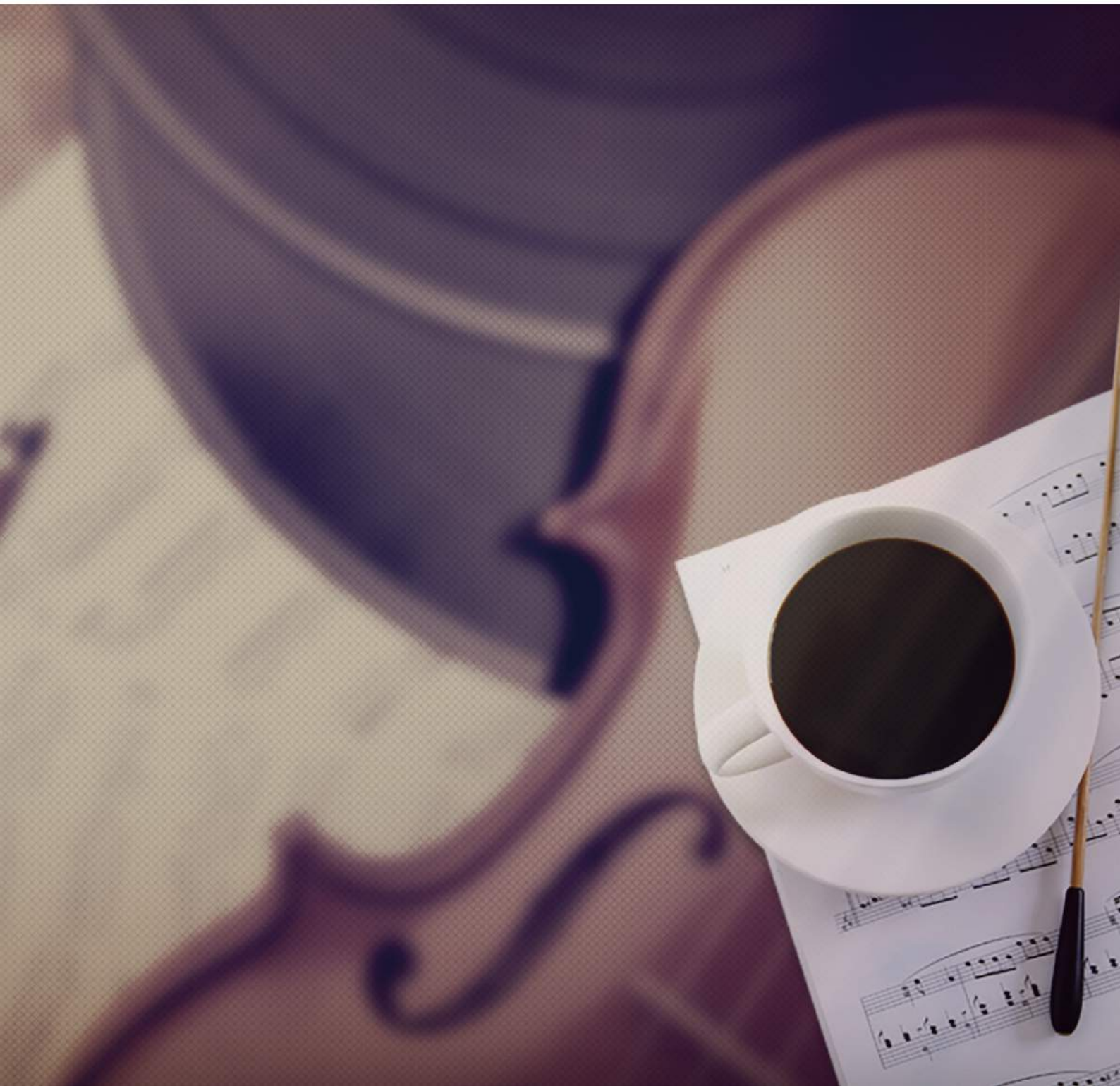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공급자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정책뿐 아니라 또 다른 한 축인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물론 이 역시 복합적인 문제여서 명쾌한 해답은 없다. 티켓 가격을 어느 정도 보조해준다고 해서 관객이 크게 증가할까? 물론 아닐 것이다. 일상적으로 야근하며 출퇴근 시간마저 긴 풍토 자체가 공연 예술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문예 시장 또한 스토리텔링은 영상물로 소비하며 텍스트는 입시, 입사 등에 도움 되는 콘텐츠만 찾는 분위기에선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 전반에 예술을 향유할 만한 여유가 없다. 혁신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할 텐데 단기간에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채로 지원만 바랄 수는 없다.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 수요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 앞에서 언급한 창작 지원 공모 사업의 실제 추이를 보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작품이 대중에게 전달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꾸려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창작자 커뮤니티에서 스펙 한 줄 정도로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 보다 시장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그들만의 리그'에서 뛰쳐나와 대중의 일상에 침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주요 단체 또한 수동적인 대관 사업을 넘어서 대중을 예술 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는 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 등에서도 비전을 공유하고 긴 안목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혜자가 아니라 시장참여자가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 예술인에겐 이게 궁극의 복지다.

조PD수첩,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클래식 잡학사전



애플루트는 분유고, 칸타타는 캔커피라는 당신.
조PD와 함께 알아두면 은근히 쓸데 있는 클래식 용어들을 알아보자.
글 조아라 경기필하모닉 주임PD



소나타, 포르테는 자동차 이름?

자동차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소나타(sonata)'는 사실 음악 양식이다. 보통 3악장으로 된 기악곡 양식을 지칭하는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가 대표적이다. 물론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음악 형식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교향곡, 실내악 등의 1악장은 대부분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자동차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르테'는 강하게 연주하라는 뜻의 음악기호다. 자동차 이름으로 쓴 걸 보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나 보다. 잘 알다시피 피아노는 여리게, 포르테는 강하게 연주하라는 뜻이다. 웬만한 가정집에 한 대씩 가지고 있는 피아노는 사실 정식 명칭이 '피아노포르테'로 강약의 소리가 자유자재로 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아노의 전신 악기인 쳄발로가 강약 조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아노가 처음 나왔을 때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포르테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칸타타는 커피가 아니라 바로크 시대 성악곡!

커피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칸타타(cantata)'는 사실 바로크시대 성악곡 양식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어의 '칸타레(cantare, 노래하다)'에서 유래했는데, 독창과 중창, 합창 등으로 된 짧은 곡들을 소규모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연주한다.

작곡가 바흐는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칸타타 BWV 211>를 작곡하기도 했다. "천 번의 입맞춤보다도 더 달콤하고 잘 익은 포도주보다 더 부드럽다"며 커피가 너무 좋다는 딸과, 커피를 계속 마시면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아버지가 티격태격하는 일종의 미니 오페라다. 커피와 결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다니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 딸은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한 후, 혼인서약서에 '커피를 마음대로 마시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몰래 집어넣어 '결혼'과 '커피' 두 마리를 모두 잡았다. 그러고 보면 커피와 칸타타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름도 아니다. 오히려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앱솔루트는 분유이름?

지난해 경기필 기획공연 브랜드는 '앱솔루트 시리즈'였다. 우리에게 '앱솔루트'는 분유 이름으로 익숙하지만, 절대음악을 의미하는 앱솔루트 뮤직(absolute music)에서 나왔다. 음 자체의 논리적 조합에 의한 예술을 추구하는 음악으로, 음의 형식이 곧 내용이 된다. 실제로 성시연 지휘자는 인터뷰에서 "음악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표제음악(program music)이 아닌 음악 자체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로 임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향곡, 소나타, 협주곡 등은 절대음악에 해당한다.



경기필 애플루트 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

칸타빌레는 노래하듯이, 돌체는 부드럽게

'치아키 센빠이(치아키 선배)' 신드롬을 일으킨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칸타빌레(cantabile)'는 '노래하듯이'라는 악상기호다. 그러니까 악보에 칸타빌레라고 적혀있으면 노래하듯이 연주하라는 의미다.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은 칸타빌레를 붙인 실내악곡을 많이 작곡했다. 그중에서도 차이코프스키 <현악4중주 1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천천히 노래하듯이)'는 애잔한 선율이 특히 아름다운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돌체(dolce)'는 이탈리아어로 '부드럽게', '아름답게', '달콤하게' 연주하라는 의미다. 서정적이고 섬세한 음악들을 작곡한 프랑스의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는 이 '돌체'를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네스카페 커피머신 돌체구스토는 아마도 커피의 부드러운 맛을 강조하고 싶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비르투오소를 기억하라!

2018년 경기필 기획공연의 새 이름은 '비르투오소 시리즈'다. '비르투오소(virtuoso)'는 음악적 기교가 뛰어난 연주자를 일컫는 표현으로, 거장 혹은 대가를 의미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르투오소는 파가니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파가니니는 계속되는 트릴, 2~3음이 한꺼번에 연주되는 더블스톱(중음주법), 휘파람 소리 같은 하모닉스, 지판을 짚으면서 동시에 줄을 튕기는 왼손 피치카토 등 현악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연주 기법을 시도하며 바이올린의 테크닉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에서도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를 비롯해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뮌헨 ARD 콩쿠르 등 10여 개의 우수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콩쿠르 사냥꾼' 김봄소리, 독일의 명문 악단인 베를린 슈타츠헤펠레 최연소 악장으로 임명되며 화제를 모은 이지윤, 미교향악단 연맹의 '떠오르는 별'로 선정되고 유럽문화재단 신인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예은 등이 협연자로 나선다.

경기필 포디움에 오르는 지휘자들도 화려하다. 뉴욕필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압 판 츠베덴, 로열 콘서트헤르바우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인 다니엘레 가티,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와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 니콜라이 즈나이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겸 슬로베니아 방송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인 리오 삼바달, 오페라 지휘에 정평이 나 있는 마시모 자네티 등이 경기필을 지휘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비르투오소들이 경기필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예술과 만남>이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호 <예술과 만남>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건의하고 싶은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독자 엽서 또는 이메일(magazine@ggac.or.kr)을 통해 전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4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남자친구와 저 둘 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또 공연도 자주 보러 다니는 편입니다.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예술과 만남>을 펼쳐보게 되었죠. 처음엔 대충 훑어보았는데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인터뷰 기사가 무척 좋았어요. 사실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가기 전에 선우예권의 인터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연주회를 보러 가기 전, 무대의 주인공 피아니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무대에 오르는지 미리 알고 가게 되어 유익했어요. **이하영** (수원시 영통구)



어느 날 부터인가 근무지로 배송되어 오던 <예술과 만남>. 알하면서 심심하거나 따분할 때 잡지를 뒤적거리는 저에게는 딱이었습시다. 겨울인 데다가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뜻깊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 공연을 보고 싶어 정보가 없을까 하고 <예술과 만남>을 펴 봤는데, 공연 정보를 한곳에 모아 놓고 정보를 알려주는 '괴감하게 골라보기'가 정말 좋았습시다. 덕분에 어떤 공연이 언제 있는지 고급 정보들을 알게 되었죠. 바라는 게 있다면 일상에서 잡하지 못하는 예술,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최수인** (수원시 권선구)



출퇴근길 버스나 옥외광고에서 레베카 뮤지컬 광고를 많이 봤었어요. 이번뿐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인지 "얼마나 재미있는 뮤지컬이길래 계속 이어지는 걸까?", "나중에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지난달 방문한 경기문화재단 의전당에서 <예술과 만남>을 보게 됐는데, 레베카 뮤지컬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정독을 하게 됐어요. 책 안에서는 뮤지컬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 포인트가 설명되어 있었고, 배우 캐스팅 스케줄까지 볼 수 있어서 공연 관람을 앞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정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세목** (의왕시 오전동)



즐거보던 <예술과 만남>에 제가 봤었던 공연 내용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천사 같은 아이들의 모습과 목소리에 상상 이상의 감동을 받아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파리나무집자가 소년합창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카펠라합창단으로 세계3대 합창단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요. 이번 공연은 11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초청공연으로 캐롤과 상송을 들려준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 공연이에요. <예술과 만남> 덕분에 다양한 공연의 정보와 지난 추억까지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좋습니다. **강지연** (안산시 상록구)

회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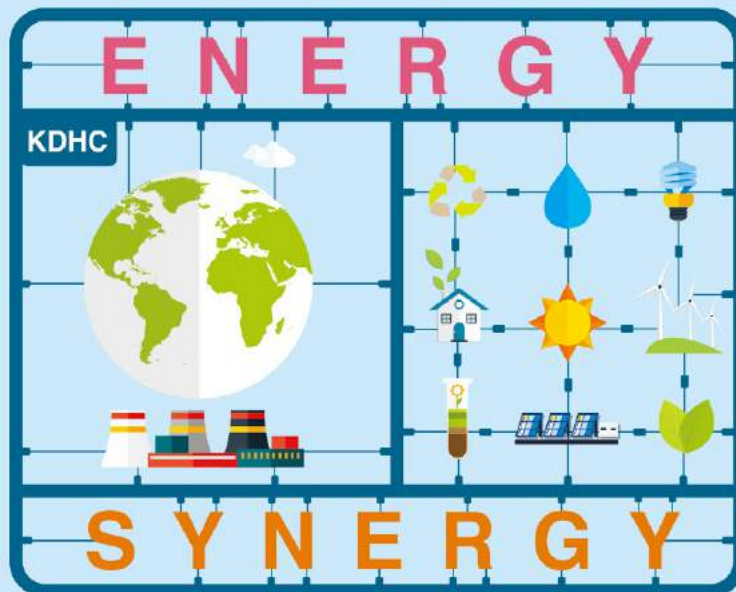
 10% TICKET 공연·전시 티켓 구매 시 할인 일부대관 공연·전시 제외	 TICKET ₩ 예매 수수료 면제 전화 및 전당 홈페이지 티켓 구매 시	 ₩ 취소 수수료 면제 전당 기획·예술단 공연 *온라인회원 제외	 경기도립미술관 정기·기획공연 초대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5% 강좌 수강료 할인 교육프로그램 '예술가 꿈' 수강료 5% 할인 *온라인회원 제외
 식음료 제휴 서비스 카페 셀란(CELLAN) 음료쿠폰 증정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예술과 만남> 우편 발송 *온라인회원 제외	 공연 프로그램 북 증정 기획공연·예술단공연 1회 1권 *온라인회원 제외	 주차요금 면제 공연·전시 관람 및 행사 참석 시 무료주차 *온라인회원 제외	 문자(SMS, LMS),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가입 안내

- 연회비 : 골드회원 5만원 / 일반회원 3만원 / 온라인회원 1만원
- 방문 가입 : 경기도문화의전당 미소도움관 내 인포샵 또는 고객센터 방문
웹 회원 가입 : 전당 홈페이지 웹 회원 가입/로그인 후 고객센터 > 아트플러스 유료회원 안내 > 회원가입
- 가입 후 10일 이내 회원카드 등기 발송(온라인회원 제외)

문의

- 전화 031-230-3242
- 팩스 031-230-3275
- 이메일 artplus@ggac.or.kr



에너지가 될까요? 시너지가 될까요?

누군가 에너지 그 자체만을 원할 때
우리는 지구를 보듬는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에너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 주목합니다
누군가 미래의 에너지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 더 큰 시너지를 계획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시너지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NEWS

2018 FEBRUARY + MARCH | VOL. 130

경기도문화의전당,
2018년 경영전략 선포
“문화가치, 우리같이”



01

2018년 1월 2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새해를 맞아 시무식과 동시에 “문화가치 우리같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선포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성장 기반추구를 포함하는 3대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전 본부 직원 및 4개 예술 단원 모두가 참석해 경영전략 선포 현장에 함께 했다. 더불어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도 전역 문화예술 관계자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新경기도 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경기필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콘서트’ 이데일리 문화대상
클래식부문 최우수작 선정



02

2017년 공연예술계 활동 중 분야별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뮤지컬, 콘서트 등 6개 부문에 대해 최우수작을 선정했다. 그 중 성시연 단장이 이끈 경기필의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콘서트’가 이데일리 문화대상 클래식부문 최우수작에 선정되었다. 우수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예약’, ‘무악’ 등 윤이상의 예술세계를 조명했다. 또한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필의 창단 20주년을 기념한 기획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03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017년 경기도 주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재인증 받고,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이 제도는 도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특히 ‘가족 사랑의 날’ 시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높은 연차 이용률’,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가정과 일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과 가족 친화적 제도를 발굴할 예정이다.

02+03

GYEONGGI ARTS CENTER

성황리에 마무리된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04

2017년 윈터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선우예권은 2부의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에서 잘 정제된 화음 타건을 선보이며, 황홀한 예술세계를 만들어나갔다. 또한 추운 날 공연장에 와준 팬들을 위해 본 공연이 끝난 후에도 라 캄파넬라, 박쥐, 등 앙코르로 3곡이나 연주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적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팬들은 열정적인 박수갈채로 화답했고, 공연 종료 후 끝없이 이어진 사인회 줄은 선우예권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신년 기자간담회 “경기도문화의 전당, 2018년 라인업 공개”



05

지난 1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준비한 올해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2018년 역시 검증된 레퍼토리와 우수한 자체제작공연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세계를 선보인다. 올 한해 더욱더 내실을 다지면서도, 바깥으로 수많은 세계적 아티스트들과 예술세계를 공유하며 외연을 넓힌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은 “참신하고 과감한 기획과 다채로운 페스티벌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쟁률 114대 1 기록. 하반기 신입사원 맞이



06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채용이 실시되었다. 경기도 14개 기관 94명 모집에 무려 5,74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경쟁률은 61대 1을 기록하였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은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신입사원들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채용된 신입사원 4명은 현재 각 부서에 배치받고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다.

2 FEBRUARY

기 기획공연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국악단 경기팔하모닉오케스트라 31 문화나눔 31 초청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31 [강남대학교 우월관] 문화나눔31	9	10
11	12	13	14	15 	16 설날 	17
18	19	20	21 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곤자암 플루트 페스티벌	22	23 초 [국립국악당 예약당] 경기팔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24 초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경기도립무용단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25	26	27	28 초 [안양수도군단강당] 경기팔하모닉 오케스트라 안양 수도군단 공연			

3 MARCH

기 기획공연 ● 경기도립극단 무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립국악단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문화나눔 31 ● 초청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삼일절	2	3
4	5	6	7	8 [기] [장애인 권익지원협회] 문화나눔31	9 [●] [평창 올림픽 스타다움] 경기도립무용단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10
11	12 [●] [평창 올림픽아트센터] 제2회 전국도립국악 관현악 축제 〈꿈과 어울림〉	1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갈라콘서트	14 [기] [용인 포은아트홀] 〈장덕철&슈가볼의 캔디데이〉	15	16	17
18	19	20	21	22 [기] [용인 포은아트홀] 타인의 취향(가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I 〈얹 판 초베덴 & 경기필하모닉〉	23 [●] [광명시민회관] 경기도립무용단 〈천년경기 우리춤의 향연〉	24 [●]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I 〈얹 판 초베덴 & 경기필하모닉〉
25	26	27	28	29	30	31 [●] [인천학생교육문화 회관 대공연장] 경기도립무용단 〈천년경기 우리춤의 향연〉 [●] [파주출판단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주출판단지 순화공연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타인의 취향(가제),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I <얹 판 초베덴 & 경기필하모닉>(서울/일산)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하이데이 콘서트(가제), 타인의 취향(가제),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 I <얹 판 초베덴 & 경기필하모닉>(서울/일산)



www.ggac.or.kr



twitter.com/iloveggac



www.facebook.com/loveggac



blog.naver.com/ggarts



9 772234 594006

ISSN 2234-5949